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5, pp. 333-346,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333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를 위한 환경분석 및 전략

이종현[1], 김화룡[2], 전상완[3*]
[1]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초빙교수, [2]한국교통대학교 스포츠산업과 강사, [3]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 연구교수

Environmental analysis and strategy to jointly host the 2027 Chungcheong Summer World University Games

Jong-Hyun Lee[1], Hwa-Ryong Kim[2], Sang-Wan Jeon[3*]
[1]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Science, Dankook University
[2]Instructor, Department of Sport Indust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3]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Exercise Rehabilitation, Gach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의 당위성과 유치환경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유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과 내용에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진단적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경분석을 적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기회(SO)는 최선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의미하는 부합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산업 간의 연계 추진. 둘째, 강점/위협(ST)은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발전과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운영 전략 수립. 셋째, 약점/기회(WO)는 낙후된 스포츠시설 재정비 및 신축 전략, 융복합 스포츠관광상품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전략적 유치활동,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넷째, 약점/위협(WT)은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 및 부족한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 변동의 문제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주제어 : 환경분석,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략, 공동유치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y to attract visitors by analyzing the justification for hosting the 2027 Summer World University Games in Chungcheong, Korea, as well as by assess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Using Environmental Analysis as the diagnostic approach, we focus on strength/opportunity (SO), strength/threat (ST), weakness/opportunity (WO), and weakness/threat (WT) analyses. SO analysis show that a matching strategy of mid- to long-term cooperation among the four cities and provinces in Chungcheong and development of local sports by promoting its linkages to science, and industry offer best strategic use-value. ST analysis shows that optim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management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non-face-to-face engagement mak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ssible. WO analysis shows the need for rearrangement and renovation of outdated sports facilities, development of programs linked to convergence sports tourism products, efficient and strategic attraction activities, and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bed town cities. WT analysis suggests that the imbalance in regional development due to expansion of sports facilities, insufficient cultural contents in tourism, and tourism demand fluctuation are potential problems. Follow-up studies can focus on deeper analysis of the possibility and attractiveness of hosting the Summer World University Games in Chungcheong, Korea using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interview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local residents.

Key Words : Environment Analysis, Chungcheong, World University Games, Strategy, Jointly Host

*Corresponding Author : Sang-Wan Jeon(jsw_3972@gachon.ac.kr)
Received April 12, 2022 Revised April 27,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1.1 연구배경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오고 있다. 신체 접촉이나 대면이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스포츠 분야와 같은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기존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같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정체 현상은 자연스레 스포츠 콘텐츠 소비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전 세계의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전반에 침체라는 위기를 발생시켰다[1].

지난 2012년 행정수도 세종시의 출범은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예상처럼 세종시는 대전(27.2%), 충남(13.8%), 충북(8.5%) 등과 같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 유입을 가져오면서[2] 충청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유입은 오히려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을 초래하고, 중소도시의 자생기능을 떨어트리는 등 오히려 지역경제 어려움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충청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각성시킬 수 있는 노력으로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도전의 출발을 위한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하계아시아드경기대회를 기점으로 동·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등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여 왔다[3]. 특히 여러 국내·외 지자체들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혁신적인 수단으로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왔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발전에 획기적 전기 마련과 강원도의 환경적 강점을 활용한 통합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의 일환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개최한 사례가 있다[4].

특히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기장 등의 스포츠 시설물 건설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숙박 및 교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직접 지출하는 직접 효과(direct effects), 관광객들의 직접 지출로 발생한 수익이 지역의 비즈니스 사이의 거래를 통해 상승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s) 그리고 관광객들의 직접 지출 때문에 증가한 급여가 전체 소비 활동의 증가 효과로 이어지는 유발효과(induced effects)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최 국가와 지역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개최 도시 및 국가의 인지도와 이미지 향상,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파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효과도 함께 발생한다[5]. 이처럼 스포츠이벤트 유치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내·외 개최 가능한 도시들 간의 유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그러나 충청은 행정수도 및 인구 550만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지역 스포츠 및 관련 산업 발전 경쟁에 뒤처져 있었다. 그 사이 다른 국내·외 지차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대회 유치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충청권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세계 최초로 공동유치하려 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충청권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후보 도시로 선정되어 올 10월 최종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유치전에 본격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충청권 도시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제적 인지도로 인해 저평가되어 왔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도시의 베드타운화, 지역별 경제성장률의 높은 편차, 높은 물가상승률 등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지역적 과제해결에 있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자본투입, 시설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개최는 단일 지역을 넘어 '하나의 권역'으로의 충청권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지자체 협력사업의 모범적 선례 및 지역과 사회 통합·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권 발전의 전환점을 창출할 수 있다[6]. 또한 충청권은 백제문화 유산의 중심인 충남, 첨단 과학의 도시 대전, 전통무예의 고장 충북 그리고 젊은 도시 행정수도 세종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의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경쟁력이 충분한 지역으로서 이번 하계세계대학경기 유치를 계기로 사회적 통합과 한층 더 발전된 경제력으로 새로운 발전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체육 분야에서 환경분석 및 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스포츠 조직에 대한 환경분석과 전략 연구'[7],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8], '지역 스포츠관광 발굴 연구'[9], '경정사업의 경영전략 방향'[10], '지역사회 발전과 스포츠산업 추진 전략'[11], '실버 스포츠산업 육성방안'[12] 등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왔다. 이처럼 SWOT 환경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스포츠 조직 및 협회의 경영 전략, 지역 및 특정 분야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관련한 마케팅 측면의 연구들로 연구되어 온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관련해서 환경분석 및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환경분석과 전략'[4]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을 뿐, 내외적인 환경분석을 통한 대회 유치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들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SWOT 분석법을 통해 충청권 시도의 최초 국제대회 유치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환경분석을 위한 적용한 SWOT 분석은 내부조직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외부조직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이라는 4가지 각 영역에서 특정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2×2 메트릭스' 형태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접근과 의사결정 사항에서 조직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SWOT 분석은 다양한 기법과 연계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 전략계획의 중요 준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부 환경요인과 내부 요인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전략의 방향성 제시와 이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13]. 이러한 SWOT 분석의 유용성은 국내·외 도시들이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열망과 노력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충청권이 안고 있는 약점과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향 모색을 가능케 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팬데믹 극복 및 글로벌 대학스포츠의 활성화 등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대회가 될 수 있다. 대학스포츠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포츠 인프라의 확장 특히, 스마트 경기장의 확장으로 선수를 비롯한 관람객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까지 참가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토의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충청권 공조로 세계 종합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강호축 중심권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6].

따라서 공동유치 환경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청권 4개 시·도 유치는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을 보다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공동유치에 대한 환경분석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대회 유치 당위성의 의미를 밝히고, 유치환경을 분석한 토대로 충청권 4개 시도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유치전략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은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는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의 당위성 확산과 유치환경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확장된 유치 전략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당위성. 둘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관한 내·외적 환경분석. 셋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모색으로 정리·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과 내용에 충실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적 접근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경분석을 적용하였다[14]. 또한 충청권(충북, 충남, 세종시, 대전시)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발표한 관련 보고서[6], 문헌, 발표된 기사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본론

2.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 분석

2.1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당위성

세계대학경기대회는 19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학생 경기 대회가 효시이며, 유니버시아드란 명칭은 1959년 제1회 이태리 토리노 대회부터 사용되었다. 2021년부터 대회 명칭이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계

대학경기대회로 변경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FISU 세계대학경기대회(FISU World University Games)이다. FISU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약자로 프랑스어로 Fede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이며, 영어로는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이다. 세계대학경기대회는 매 2년을 주기로 개최되며, 최근 제28회 2015 광주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된바 있고, 향후 제31회 중국, 제32회 러시아, 제33회 독일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30번 개최된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유럽 17회, 아시아 9회, 아메리카 4회, 우리나라는 이미 2회(대구, 광주) 개최한 현황을 보이고 있다[15]. 이처럼 유럽에서의 개최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학 스포츠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최 대륙별 안배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종목별 국제대회들도 대륙별 순환 및 안배를 통한 개최의 당위성 논리가 부각되고 있다.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당위성으로서는 크게 국가적 가치, 지역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가적 측면에서의 언급으로는 첫째,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다시 한번 경제 대국의 꿈을 일으키려 했던 일본의 전략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K-방역과 K-POP의 열풍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착실히 높아져 왔다는 관점에서 유치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한 국가의 국력은 지방 시도가 가진 역량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결국 각 도시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몇 개의 도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도 이런 관점에서 필요하다. 즉, 도시 브랜드 제고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의 성장은 지역과 국가 모두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충청권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참여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 지역이자 수도권의 경제적 문화적 배후지임에도 그에 합당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었다. 특히 국제적 브랜드 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참여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충청권은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으로 스포츠 관련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며,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낙후 정도가 심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은 새로운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최의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측면의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당위성으로서는 첫째,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의 필요성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단기간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4차 산업이 선도할 미래사회에서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사회문화의 지속가능성은 국제적 지명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지역의 미래 생존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충청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가능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 동안 저평가되어 왔다. 기존 국내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니버서시아드대회 등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만 개최되어[6] 오면서 지역경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라는 기회를 활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충청권의 가능성이다. 충청권은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국제공항, 철도, 도로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 측면에서 대학, 연구단지, 산업단지 내에 클러스터 등 한국의 학술·연구 중심지이며, 친환경 생태 산업의 중심지로서 저탄소 중심사회에 대비한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즉, 기존 인프라를 최대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대회 공동유치는 지자체 재정 및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기여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유치 사전타당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7,289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1

0,499명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및 연관 산업 활성화 등과 같은 간접효과 등을 더하면 충청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가 되어 개최의 당위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2.2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강점 요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보고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첫째, 대회 개최를 위한 재정적 역량의 확보이다. 충청권은 2018년 지역 내 총생산(GRDP) 240조이며, 2020년 재정규모 약 19조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충분하다. 특히 공동개최로 경기장 신축 및 재정비를 위해 4개 시·도당 지방비에서 약 767억원 부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청권 4개 시·도 비용 분담은 중앙정보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통해 국내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장제3조 참조).

이와 더불어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 추가 부담 없이, 기업후원 및 마케팅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충청권에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중 7개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LG화학, 롯데, 한화 등)이 소재하고 있어 충분히 기업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재정적 역량 측면에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대회를 공동개최해 저비용·고효율 대회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대회 개최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교통·통신·숙박) 구축이다. 충청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도로(경부·중부·서해안·호남·중앙고속도로 등), 철도(KTX경부·SRT중부·KTX호남·SRT호남고속선, 강경선, 충북선, 장항선 등), 항공(청주국제공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철도·항공 교통 인프라에 대한 추가 예산 배정을 통한 추가 신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듯 충청 메가시티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도전을 위해 대학스포츠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마트 경기장의 확장으로 선수를 비롯한 관람객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까지 참가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즉, 첨단기술 미래에 도전하는 대회를 지향하기 위한 통합미디어센터(IIMC)에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한 중계 및 새로운 미디어의 개발 등을 통한 통신기술의 인프라를 구축 및 추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대회 개최 시 가장 중요한 숙박에 대한 부분은 현재 충청권은 공공·민간 연수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숙박 시설을 대거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셋째, 문화·관광 자원의 풍부함이다. 역사적으로 충청권은 백제문화권·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함에 따라 대회 기간 중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문화재청이 지정한 7대 문화권 중 2대 문화권(백제, 중원)의 중심 지역으로 대회 기간 중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4개 시·도당의 지역 특장점을 갖춘 대전(과학), 세종(행정), 충북(무예), 충남(역사)과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관광은 관광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로 관광과 스포츠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오늘날 스포츠관광은 관광의 한 형태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넷째, IT 기술의 역량과 교육적 역량의 확보이다. 과학기술의 도시로서 우수한 IT기술을 기반해 대회운영 기술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활용한 선수 및 관계자 안전 수송 및 보안을 확보할 수 있으며, AI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경기 정보 접근성 확보 및 대회 참여자 모두의 소통체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 보유를 통해 대회운영 관련해 다양한 편의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교육도시(89위)로서 좋은 교육 환경과 충분한 대학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실을 다질 수 있다.

2.3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약점 요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내부적인 약점요인으로는 첫째, 경기시설의 부족과 노후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충청권의 경우 국제대회 활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그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충청권의 시·도민들이 생활스포츠를 향유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기며 여유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16]. 권역별 주요 공공체육시설 현황 조사[6]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3만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및 5천석 이상의 실내 체육관이 부족한 상태이며, 타지역과 비교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스포츠 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에 비해 부족한 콘텐츠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청권은 역사적으로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변화하는 관광객의 요구 충족 및 기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인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지금까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오지 못한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셋째, 대도시 중심으로 한 베드타운화의 지속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역별 경제 성장률 편차가 존재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도심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잘 발달 된 교통시설로 인해 대도시 주변으로 베드타운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에서 중요 개념 중의 하나는 '직주근접'이다. 직주근접을 통해 자족적인 생활권을 영위하여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17]. 그러나 충청권은 도시의 자족기능의 상실과 생활편의시설 및 일자리 부족 현상 등의 왜곡된 도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국제대회 개최 경험의 부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년 올림픽, 2002년 FIFA 한일월드컵, 2002년 하계아시안게임, 2018년 동계올림픽,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수 많은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 대회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지난 여러 대회를 치루면서 많이 축적된 것이 사실이나, 충청권의 경우 주도적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전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를 유치해 오면서 참여했던 인력과 시스템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준비와 개최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자체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2.4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기회 요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 첫째, 공동개최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함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제대회의 경우 환경오염 및 재정부담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올림픽 아젠다 2020'에서도 다수 국가·도시에서의 공동개최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회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 4개 시도의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개최는 올림픽 아젠다를 실현하는 가장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그 효율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아시아의 세계대학경기대회 확산과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회 위상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4].

둘째, 충청권 지역의 중·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경제효과이다. 경기장 및 교통망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절감과 경기부양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대회기간을 전후한 관광수입 및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를 유발시키며, 충청권 4개 시·도의 브랜드 파워 향상에 기인된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회 준비 및 사후 활용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회를 낳을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축제, 박람회 등과 유사하게 지역의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미지 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에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측면에서 높은 기대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18].

셋째, 지역 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경기장 시설의 신축과 재정비를 통해 향후

국제대회 유치 및 지역 프로스포츠 팀 창단과 충청권으로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호인을 기반으로 한 생활체육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각 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의 화합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스포츠시설을 건립하였다면, 최근에는 관광객 유치 및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인천과 대구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해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으며, 해외의 경우, 영국의 셰필드는 1991년 세계학생경기대회(World Student Games)를 유치하기 위해 약 3020억 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스포츠시설 구축에 투자하였으며, 맨체스터는 2002 영연방게임(Commonwealth Games)을 유치하기 위해 약 412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19]. 이처럼 국내외 지자체에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의도는 지역에서 미처 개발되지 못한 평야와 임야를 적극 개발하여 대규모 스포츠시설을 증축하고 필요한 사회간접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시 선진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다[20].

넷째,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시도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다. 국제 교류 해외지자체와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와 산업별 연합기구 및 학생교류 기구의 스포츠 행사 장소 제공[21]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 유치는 국가 이미지 상승과 같이 지역 도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역 경제뿐 아니라 홍보수단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2,23].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인지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왔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스포츠대회 유치는 충청권 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스포츠 이벤트는 단순히 전문체육 종목들의 경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 문화교류와 지역홍보 등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라는 점에서[20] 충청도 시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5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의 위협 요인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위협요인으로 첫째, 충청권 대도시 위주의 발전 정책으로 인한 관리 및 개발 불균형의 지속이다. 현재 충청권 소도시의 쇠퇴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균형적인 도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으로 충남과 충북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 아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하였다. 특히 2030년까지 인구 50만 도시를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 출현 연구기관들이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한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역기능이 발생하면 주변 소도시로부터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어져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이 장애가 되고 있다[24].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를 예상하였지만, 오히려 인근 충청권의 중소도시들의 인구를 흡수하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관리 및 발전 정책도 세종시와 대전시 등의 대도시 위주로 이어지면서 그 외 도시들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대회 유치는 일시적인 단기경기 부양효과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외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 부담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야기한다[25].

둘째, 국내외 도시 간 관광 경쟁 심화로 인해 스포츠 관광 수요의 변동 가능성이다. 지자체들은 스포츠 이벤트 유치가 다양한 가치 및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다른 스포츠산업 분야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도 쉽게 개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차별화 되지 못한 기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26, 27]. 이러한 차별화 되지 못한 스포츠 이벤트는 이미 지자체별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변화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코로나와 같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관심과 참여의 부족 및 정책적 규제이다. 최근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 보듯이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재정적 손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28]. 체육·관광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관련해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정적 효과로는 경제적 효과 과대 추정, 경제효과 미약 및 재정지출 부담, 낮은 경제체감 효과 등이다[29-31]. 즉, 이처럼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신중론과 비판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의 확산은 더욱 이 같은 문제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 변이가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 또다시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3.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3.1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 강점/기회(SO)전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강점/기회(SO)의 조합으로 최선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의미하는 부합 전략으로는 첫째,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 전략 추진이다. 국제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규모의 스포츠 이벤트 유치 결과는 우연에 의해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32]. 즉, 개최 이전에 정부와 유치 도시들 간에 체계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중·장기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세심한 운영 노력을 기울여야 유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4개 시·도의 최초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만큼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이 중앙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로의존성을 탈피하여, 주도적인 지방단체 운영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단일 도시개최가 아닌 4개 시도의 공동개최는 이전 어느 대회보다 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잘 갖춰져 있는 장점이 있다. 풍부한 문화유산과 지역 특성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교통 중심지로서 접근 용이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단순 대회 반사이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국외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 충청권의 미디어 노출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 사례로 춘천시의 경우, 레저를 도시의 주요 테마로 삼아 지리적 이동의 접근성 및 호수나 산이 많은 자연환경을 활용해 수상 및 산악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토착화된 막국수축제, 마임축제, 애니메이션축제 등 지역 고유의 축제 행사와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이벤트는 단지 유치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와 자원과 최대한 결탁하여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고양시키는 상품으로 재탄생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20]. 이 같은 충청권의 공동개최는 최초인 만큼 단편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전략을 계획하고 시행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33].

둘째,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산업의 연계 전략이다. 우선 스포츠 시설과 같은 인프라 증대는 대회 개최 후 비인기 종목의 프로팀 및 실업팀을 창단하여 향후 국제대회를 위한 유산을 확보하여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종목 선수 육성이 가능할 수 있다. 대회 유치를 위한 신축 경기장 구축 및 기존 경기장의 재정비는 국내·외 크고 작은 대회 개최와 팀 창단을 통해 사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어 지역 스포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가져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제도 방안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 역시 생활체육 중심의 정책 기조로 바뀌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 건강 및 여가의 관심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가 늘고 있다. 따라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전략은 시설을 기반하여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스포츠·과학·산업을 연계 가능한 새로운 정책 전략 수립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생활체육 참여 형태의 동태 파악, 체육참여 효과의 계량화, 요인별(연령별, 성별, 코호트 등) 효과 구분이 가능할 수 있어 지역 스포츠의 다양화와 발전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34].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우수한 충청권 지역 대학교를 기반으로 스포츠과학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미래 스포츠과학 전문가 양성 및 선수 경기력 향상 그리고 새로

운 스포츠 관련 ICT·빅데이터 산업 분야를 육성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스포츠·과학·산업을 연계한 학과 설립은 미래를 준비하는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을 꾀함은 물론,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는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33]. 다시 말해 문화·관광만이 아닌 새로운 혁신 스포츠산업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발전 및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3.2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 강점/위협(ST)전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강점/위협(ST)의 조합으로 환경의 위협요인을 강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전환전략으로 첫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발전이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주변 중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증가와 대도시 위주의 발전 정책으로 지역 간 고른 발전에 저해를 가져왔다.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확충될 사회간접자본의 인프라는 정주 여건의 향상은 도시 및 지역 활성화와 균형적 경제발전 등 다방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전략적으로 대회 유치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반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 및 국내외에서 경쟁우위의 차별화 전략으로 특성화된 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별 이미지개발과 고객지향 마케팅 마인드로 전환이 시급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목표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35]. 결국 스포츠 이벤트 관련 여러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요인을 높이는 것은 대회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관광객의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한 지역 홍보효과 및 스포츠관광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36, 37]. 따라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기존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이미지 창출을 위한 기존 관광·문화 자본과 연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기 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 유치 및 운영 전략 수립이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비대면의 전환으로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발생해 왔다. 특히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방법 및 전략으로의 전환으로 위기를 모면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올림픽 개최가 기대했던 경제수익 및 파급효과의 성과를 얻지 못함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대회 관심도 낮아지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사례를 보고하였다[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많은 나라들은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 개선과 경제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회 유치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제 대회 유치에 있어 비대면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즉, 팬데믹 상황에서도 스포츠 대회 개최가 가능한 프로토콜 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한편, 이번 대회유치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는 새로운 스마트 경기장의 확장으로 선수를 비롯한 관람객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까지 참가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회 운영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관련 기술 도입을 통한 적용의 범위를 검토하는 작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기장뿐 만 아니라 국내외 참여자 및 관람객들의 관심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비대면과 같은 위기 상황의 대회 유치는 IT·통신의 국가 기술산업을 발전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이며, 새로운 IT 기술 도시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과학의 도시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된다.

3.3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 약점/기회(WO)전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약점/기회(WO)의 조합으로 약점을 환경의 기회요인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전환전략으로 첫째, 낙후된 스포츠 시설을 재정비하고 신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스포츠 시설 기반 조성은 충청권 생활체육 정착 확대 및 스포츠시설을 확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대회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생활스포츠 클럽 창단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롭게 구축된 경기 시설을 매개로 해당

종목의 지역 생활스포츠 클럽 창단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체육단체 주도의 풀뿌리 스포츠 육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스포츠 클럽 제도를 실시하여 클럽 스포츠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스포츠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운동의 습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을 확보함에 따라서 종목별 국제 규모의 대회 개최 및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국제규격의 생활체육 장소 제공이 가능해 질 수 있음은 물론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훈련 장소로도 제공이 가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시설적 측면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 이용 및 대회유치 인력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대학체육 발전 세계화와 소통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홍보대사 운영 및 학생자원 봉사활동 참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함께 요청된다. 따라서 충청권 지역 대학과의 업무 협약 및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둘째, 융복합 스포츠 관광상품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다. 창조적 스포츠대회 상품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체육·축제를 연계한 콘텐츠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국제·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와 지역행사 기간을 통합해 대회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된다. 또한 스포츠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여행상품 개발과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융복합 스포츠 상품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팬과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 외 지역 곳곳을 탐색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콘텐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대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 상인, 지역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명소 조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관광학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억할 만한 관광경험(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MTEs)'은 관광 이후 장기적인 기억으로 남을 만큼 인상이었던 관광 경험을 의미하고 있다[39]. 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주는 감동, 감성, 경험 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체험 및 소통, 교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주체자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민들과의 차별화되고 스포츠와 연계된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관광상품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청권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의 도약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유치활동이다.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개최되는 최초의 대회로 경기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회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고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저비용·고효율의 모범적인 대회를 부각시키는 유치활동 전략이다[15]. 지난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 및 국정과제로의 채택 가능성 등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개최인 만큼 충북도지사가 대표로 유치추진단장을 맡고 주도적으로 대회 유치를 이끌고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유치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들을 위촉해 국제대회 유치 경험의 부족함을 전략적으로 대체하고 있다[40]. 이는 그동안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의 효율적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산업, 민간 관련 유치 추진단 발촉은 보다 의미있는 유치활동 전개와 지역의 관심을 도모할 수 있다[4].

넷째,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다. 충청권의 베드타운 도시를 지속가능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력,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건강성 그리고 과학적 보편성과 제도적 개방성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핵심은 '직주근접'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17]. 산업기능이 전무하다시피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R&D 및, 관광문화산업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산학연을 조성하여 R&D를 중심으로 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및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3.4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활성화 전략 : 약점/위협(WT)전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환경분석의 약점/위협(WT)의 조합으로 약점과 환경의 위협요인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최소화 전략으로 첫째,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이다. 분명 기존 스포츠시설을 재정비하고 국제대회 유치 규모에 맞는 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입지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 위주일 것이고, 개발 기업들도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대도시 위주의 시설 신축의 선호할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충청권 지방정부는 시설 입지 안배에 대한 세심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한편, 스포츠시설의 확충은 국고 출현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함으로써 정부나 지방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향후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설 확충에 대한 입지 선정은 여러 관점을 고려한 결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 지역의 잘 구축된 교통망을 활용해 지역 도시들 간에 접근이 용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 시설 확충 전략이 요청된다. 특히 대회 전·후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접점 가능한 지역의 탐색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향후 시설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차원의 지역별 관광 상품 개발 및 특산품을 브랜드화하여 입점을 가능토록 하여 스포츠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부족한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의 변동 문제이다. 백제 문화의 중심지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연계 상품의 부족은 전략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관광 산업의 큰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확보하고 스포츠와 연계한 상품 및 토속적인 지역 상품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또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한류관광은 대중문화를 포괄하는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관광인 만큼 대중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화, 드라마와 영화 및 인기 영상 촬영지, 콘서트참여, 음식 등을 선호하여 찾아오는 관광 형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토속적 문화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 후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관광 수요의 니즈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처럼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점에도 지금까지 이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관광 연맹을 설립하고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여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스포츠관광 연맹은 지역 스포츠 이벤트의 지속적인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대회 유치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38].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환경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의 영향요인,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구분한 고찰을 통해 활성화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강점/기회(SO)는 최선의 전략적 활용가치를 의미하는 부합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중·장기적 공조 추진',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산업 간의 연계'이다.

둘째, 강점/위협(ST)은 환경의 위협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별 균형 발전', '비대면 유치를 대비한 대회운영 전략 수립'이다.

셋째, 약점/기회(WO)는 약점을 환경의 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낙후된 스포츠시설을 재정비하고 신축하기 위한 전략', '융복합 스포츠관광상품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유치활동', '베드타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다.

넷째, 약점/위협(WT)은 약점과 위협의 최소화를 의미하는 최소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은 '스포츠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개발의 불균형 지속', '부족한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와 관광 수요 변동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충청권(충북, 충남, 세종시, 대전시)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를 위해 발표한 관련 보고서 및 관련 문헌, 발표 기사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의 당위성 확산과 유치환경의 분석을 통한 유치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관련 보고서 및 발표 기사들

을 대부분 유치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환경분석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제시할 수 없었다는 일부의 한계 및 국외 도시와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언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충청권이 유치하려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관계자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심층면담 등의 질적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S. Y. Kim & J. J. Nam. (2021). Influence that golf consumer's selection attributes of golf wear has on brand loyalty & intent of continuous purchase.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30(2),* 435-445.

[2] D. H. Kim & S. H. Hong. (2021).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Sejong City on Housing Prices in Neighboring Areas.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7(3),* 39-57.

[3] K. J. Yun. (2020).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Path-Dependency in Attracting and Holding of Sports Event.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20(3),* 1-19.

[4] H. T. Kim. (2018). A Study on the Strategy and SWOT Analysis of Host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Journal of KOEN, 5(1),* 14-24.

[5] B. Y. Moon, W. J. Seo, H. G. Kim & B. C. Lee. (2015). *Sports tourism management theory.* Gyeonggi-do, South Korea: Gyomunsa.

[6]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20). *2027 Chungcheong Province Summer Universiade Pre-Feasibility Study.* Service Report.

[7] Y. O. Park & Y. S. Lee. (2001). A anaylsis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a formation of Strategy for Korea Badminton Associ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0(2),* 361-370.

[8] M. C. Kim. (2008). Sports Industry Revitalization Strategy of Small City : Cases of Gangjin County and Namhhae County.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9(4),* 176-191.

[9] E. S. Yang & K. H. Choi. (2021). Environmental Analysis for Discovering Specialized Local Sports Tourism.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7),* 17-32.

[10] J. H. Lee & Y. K. Kim. (2003). The Management Strategies Orientation of Motor Boat Racing Industry through SWOT Surrounding Analysis. *The Korea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2(4),* 519-527.

[11] Y. S. Lim & H. T. Kim. (2012).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y of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and Sports Industry of Pocheon City.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6(4),* 239-248.

[12] E. J. Seo & Y. S. Won. (2019). A Search for Method Development of Silver Sport Industry Through SWOT Analysis.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8(5),* 27-35.

[13] S. Ghazinorry et al. (2011). SWOT Methodology: A State-of-the-art Review for the Past, A Framework for the Future,"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12(1),* 24-25.

[14] P. Kotler. (1994).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 5th ed, NJ:prentice-hall Inc.

[15] Chungcheong 2027. (2022). *FISU World University Games Summer.* Home-page. https://2027chungcheong.com/kor/

[16] Geumgang Ilbo. (2019). *Cheongju City should create a balanced living and sports facility for each region.*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0079

[17] Y. H. Lee. (2013). The Study on Planning of Cluster of Sustainable Northeastern Seoul, *The Society of Sustainability Science, 4(2),* 65-79.

[18] J. Y. Han & M. C. Kim. (2012). The Local Economy Effect of Before and After Mega Sports Event: Focused on 2002 Busan, 2003 Daegue, 2015 Kwangju.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7(2),* 21-34.

[19] C. Gratton, S. Shibli & R. Coleman (2005). The economics of sport tourism at major sports events. *Sport Tourism Destinations, 233,* 247.

[20] H. J. Ji & J. H. Kim. (2009). Guideline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Building Leisure-Sport Infrastructure.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33(3),* 185-194.

[21] Chungnam Institute. (2014). Debate 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Cheongyang area by attracting sports competitions. http://210.95.191.149/handle/2016.oak/3168

[22] J. Crompton. (1998). *The economic impact of spor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ublic sector Paper Presented.* at the 7th Annual Conference of the Japan Society of Sport Industry. Tokyo, Japan.

[23] J. Crompton & S. McKay. (1999). Motives of visitors attending festival ev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 425-439.

[24] S. D. Kim, T. Y. Sung & M. H. Lee. (2015). Impacts of Inauguration of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on Population Migration Network in Neighboring Areas : Focused on Population Migration in Chungcheong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7(5),* 283-301.

[25] H. J. Jung. (2008). Sports mega-events and economic impact: Reconstruction of "invented truth".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21(1),* 229-251.

[26] H. M. Jeon. (2005). An Investigation of Spending Patterns by Sport Event Spectators and Economic Impact of Direct Spending on a Host City.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0(2),* 51-62.

[27] W. J. Jo. (2006). A Study of Residents' Perceived Benefits of Hosting a Regional Sport Event.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15(4),* 275-288.

[28] Munhwa Ilbo. (2021). *It failed at the box office even after pouring 32 trillion won..*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80901031903354001.

[29] J. R. Madden. (2006). Economic and fiscal impact of Mega Sporting Events: a general equilibrium assessment. *Public Finance and Management, 6(3),* 346-394.

[30] V. A. Matheson. (2006). Mega-events: The effect of the world's biggest sporting events on local,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es. *College of the Holy Cross Working Paper Series,* 6-10.

[31] E. Kasimati. (2003). Economic aspects and the Summer Olympics: a review of relate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5,* 433-444.

[32] G. Clark. (2008). *Local development benefits from staging global events*. Paris OECD.

[33] S. H. Park. (2008). Strategies for Hosting International Sporting Games. Sungkyunkwa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34]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21). *Necessity to introduce panel survey for evidence-based lifestyle sports policy.* Sports Issue & Analysis, 25.

[35] H. M. Jeon & S. M. Lee. (2004). A Study on the Ecological Planning Principles in Korean Traditional Citie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39(2),* 7-20.

[36] S. S. Kim & A. M. Morrsion. (2005). Change of images of South Korea among foreign tourists after the 2002 FIFA World Cup. *Tourism Management, 26,* 233-247.

[37] P. Kotler et al. (2002). *Marketing Asian Places: Attracting Investment*, Industry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s, John Wiley & Sons(Asia)Pte Ltd.

[38] M. S. Kim. (2021). Retrospective and Prospect of Sports Tourism in the Corona Era, International Events in Neighboring Countries. *Journal of Tourism Policy, 85*, 55-59.

[39] S. Larsen. (2007). Aspects of a psychology of the tourist experience. *Scandinavi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7(1),* 7-18.

[40] J. H. Lee & M. G. Seok. (2014). The Plan of Korea College Golf Federation for Revitaliz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9*(1),* 41-60.

이 종 현(Jong-Hyun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충북대학교 체육학과 (체육석사)
· 2012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22년 2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관심 분야 : 국가체육, 스포츠문화
· E-Mail : leejong@sports.or.kr

김 화 룡(Hwa-Ryong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석사)
· 2010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이학사)
· 2019년 2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정책, 스포츠경영
· E-Mail : khr1010@knsu.ac..kr

전 상 완(Sang-Wan Jeon) [정회원]

· 2008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체육석사)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체육학과(체육박사)
· 2021년 4월 ~ 현재 : 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 연구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스포츠ICT융합, 노인체육, 스포츠정책
· E-Mail : jsw_3972@gachon.ac.kr